

# 새해 축포로 '100호골'... 토트넘 역사가 된 '손흥민'

역대 18번째 '100골 클럽'... 영국 외 선수 최초

독일서 2015년 이적... '월드클래스' 반열 올라

‘손세이셔널’ 손흥민(29)이 새해 축포로 토트넘 홉스퍼 입단 후 100번째 골을 터트리며 구단 역사에 한 페이지를 장식했다.

손흥민은 2일 오후 9시30분(한국시간) 영국 런던의 토트넘 홉스퍼 스타디움에서 열린 리즈 유나이티드와의 2020~2021시즌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EPL) 17라운드 홈 경기에서 1-0으로 앞선 전반 43분 해리 케인의 크로스를 오른발 눈스톱 슈팅으로 마무리하며 추가골을 넣었다.

2015년 여름 토트넘 유니폼을 입은 손흥민의 100번째 골이다.

손흥민은 토트넘 소속으로 EPL 65골, 잉글랜드축구협회(FA)컵 12골, 리그컵 3골,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 14골, 유로파리그(예선포함) 6골을 기록, 100호골을 완성했다.

손흥민은 또 토트넘 구단 역사상 18번째 100골을 넣은 선수가 됐다. 영국, 아일랜드 국적이 아닌 선수로는 최초다.

현재 토트넘에서 뛰는 선수 중 손흥민보다 많은 골을 넣은 선수는 해리 케인(205골)뿐이다.

독일 분데스리가에서 성장해 토트넘에서 ‘월드클래스’ 반열에 오른 손흥민이다.

입단 첫 시즌 적응에 어려움을 겪었지만, 2016~2017시즌 EPL 14골로 자신감을 찾은 뒤 이번 시즌까지 5시즌 연속 정규리그 두 자릿수 득점에 성공했다.

모든 대회에서도 5시즌 연속 두 자릿수 골 맛을 봤다.

커리어하이로 꼽히는 2016~2017 시즌엔 모든 대회에서 47경기 21골로

유럽 진출 후 처음 20골 고지를 넘었다.

해당 시즌 손흥민은 초반 17경기에서 6골을 넣었는데, 올 시즌은 득점 속도가 두 배 넘게 빨라 한 시즌 최다골 기록을 경신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손흥민은 EPL 12골로 득점 랭킹 단독 2위다. 선두 모하메드 살라(13골·리버풀)와는 1골 차이다. 현재 페이스 라면 아시아 선수 최초의 EPL 득점왕 탄생도 결코 불가능은 아니다.

또 올 시즌 유로파리그(3골·3도움) 포함해 모든 대회에서 15골 8도움으로 벌써 23개 공격포인트를 쌓았다.

토트넘 구단도 공식 소셜미디어에 손흥민의 100호골 포스터와 함께 대기록 소식을 전했다.

이를 본 토트넘 레전드 로비 킨은 “손흥민, 토트넘 100호골 클럽에 온 걸 환영한다”라며 축하 댓글을 남기기도 했다. 킨은 토트넘에서 122골을 넣었다.

손흥민도 토트넘의 역사가 된 것에 기뻐했다. 그는 “한 팀에서 100골을

넣은 건 엄청난 일이다. 매우 자랑스럽다”면서 “팀 동료들에게 감사하다.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모두의 도움이 필요했다”라며 웃었다.

손흥민은 ‘단짝’ 케인과 EPL 새 역사도 함께했다.

케인은 손흥민의 100호골을 도우며 이번 시즌 13번째 합작 골을 만들었다.

축구통계전문업체 옵타(Opta)에 따르면, 1994~1995시즌 블랙번에서 13골을 함께 한 앨런 시어러, 크리스 서튼과 타이거이다.

또 둘은 2015~2016시즌부터 EPL 통산 33골을 함께 만들었다. 이제 3골만 더 합작하면 디디에 드록바와 프랭크 램파드가 보유한 EPL 역대 최다 득점 합작 기록(36골)과 어깨를 나란히 한다.

아직 시즌 반환점도 돌지 않아, 후반기에도 지금의 상승세를 이어간다면 대기록의 주인공이 될 전망이다.

뉴시스



손흥민이 토트넘 홉스퍼 100호골 클럽에 가입했다. (캡처=토트넘 소셜미디어)

## 레알 마드리드, 손흥민 예의주시 “지단 감독 관심”

스페인 프로축구 명문 클럽 레알 마드리드가 손흥민(토트넘)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영국 ‘기브미스포츠’는 한 터키 기자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인용해 “레알 마드리드가 손흥민 영입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지네딘 지단 레알 마드리드 감독이 손흥민을 관찰 중이다”고 보도했다.

해당 기자에 따르면, 레알 마드리드는 토트넘 측과 접촉해 손흥민에 대한 정보를 요청할 계획이다.

레알 마드리드의 손흥민에 대한 관

심은 지난해 11월 스페인 언론을 통해서도 전해졌다.

손흥민은 지난해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EPL)와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 유로파리그 등에서 22골 10도움을 올리며 토트넘 공격을 이끌었다.

가파른 상승세다.

이번 시즌 리그에서 11골을 터뜨리며 득점부분 공동 2위를 달리고 있다.

국제축구연맹(FIFA) 풋볼 어워드에선 매년 가장 아름다운 골에 주어지는

푸스카스상을 받았고, 이날 국제축구연맹(IFFHS)이 선정한 2020년 최고 아시아 선수에 이름을 올렸다.

‘기브미스포츠’는 “이번 시즌 손흥민의 활약을 감안하면 레알 마드리드의 시야에서 거론되는 것이 전혀 놀라운 일이 아니다”고 했다.

한편, 손흥민과 토트넘의 계약은 2023년 6월까지다. 토트넘은 이번 시즌 초반부터 손흥민과 재계약을 맺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뉴시스

## 김하성, 샌디에이고 홈구장 펫코파크서 ‘인증샷’

4+1년 최대 3900만달러에 계약... 크로넬위스와 2루수 경쟁

샌디에이고 파드리스와 계약하고 메이저리그(MLB) 진출에 성공한 김하성(26)이 자신의 홈구장이 될 펫코파크를 배경으로 ‘인증샷’을 찍었다.

김하성은 3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 서비스(SNS)를 통해 펫코파크를 배경으로 찍은 사진을 공개했다.

그러면서 “굿”이라고 적은 뒤 엄지손가락을 치켜세웠다.

샌디에이고는 지난 1일 김하성과의 계약을 공식 발표했다. 계약기간 4+1년, 최대 3900만달러(약 424억원)의 조건이다.

4년 2800만달러가 보장됐으며 옵션을 포함하면 최대 3200만달러다. 2025년에는 상호 옵션이 걸려있고, 옵션을 실행하게 될 경우 최대 3900만달러까지 받게 된다.

2014년 히어로즈에 입단해 2015년 주전 유격수로 도약한 김하성은 KBO 리그에서 뛰는 7시즌 동안 타율 0.294

133홈런 575타점 606득점을 기록했다.

김하성은 2020시즌에도 타율 0.306 30홈런 109타점 23도루 111득점으로 뛰어난 성적을 거뒀다.

김하성은 2020시즌을 마친 뒤 포스팅 시스템을 통해 메이저리그 진출을 추진했다. 공수주 삼박자를 두루 갖춘 20대 중반의 젊은 내야수에 다수의 빅리그 구단이 관심을 드러냈고, 샌디에이고가 승자가 됐다.

유격수 페르난도 타티스 주니어, 3루수 마차도가 버티고 있는 샌디에이고 내야진은 탄탄하다. 2020시즌 샌디에이고의 2루수는 지난해 내셔널 리그 신인왕 투표에서 2위에 오른 제이크 크로넬위스였다.

김하성은 크로넬위스와 2루수 자리를 두고 경쟁할 전망이다.

미국 CBS스포츠는 2021시즌 샌디에이고의 선발 라인업을 예상하면서



샌디에이고 파드리스의 홈구장인 펫코파크를 배경으로 사진을 찍은 김하성. (사진 = 김하성 인스타그램 캡처)

김하성을 7번 타자·2루수로 포함했다.

지난해 12월28일 출국해 계약을 마무리한 김하성은 2일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했다.

김하성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지침에 따라 2주간의 자가격리를 거친 뒤 개인 일정을 소화할 예정이다.

뉴시스

## 정성룡 골키퍼, J리그 가와사키와 재계약

5시즌 동안 활약... 지난 J1리그·일왕배 우승 기여



축구 국가대표 출신 골키퍼 정성룡(36)이 일본 프로축구 J리그 가와사키 프론타레와 재계약을 맺었다.

가와사키는 2일 구단 홈페이지를 통해 정성룡과 2021시즌 계약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2003년 프로축구 K리그 포항 스틸러스에서 프로 데뷔한 정성룡은 성남 일화(현 성남FC), 수원 삼성을 거쳐 2016년 가와사키 유니폼을 입었다.

정성룡은 가와사키에서 5시즌 동안

J1리그(1부리그) 154경기를 포함해 총 196경기에 출전했다.

지난 시즌엔 가와사키의 J1리그와 일왕배 우승에 기여하며 시즌 2관왕을 달성했다.

정성룡은 구단 홈페이지를 통해 “올해도 가와사키와 함께 싸우게 돼 기쁘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힘들지만, 빨리 좋아져 경기장에 많은 팬이 오길 바란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뉴시스

## 류현진·김광현, 2021 빅리그 정복 나선다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 속에서도 빼어난 활약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메이저리그(MLB)에서 눈에 띄는 활약을 펼친 ‘코리아 몬스터’ 류현진(34·토론토 블루제이스)과 ‘KK’ 김광현(33·세인트루이스 카디널스)이 2021시즌에도 힘차게 뛰는다.

2019시즌을 마친 뒤 토론토와 4년 8000만달러에 자유계약선수(FA) 계약을 맺은 류현진은 토론토의 에이스로 거듭나며 팀의 기대에 부응했다.

2019년 겨울 포스팅 시스템을 통해 세인트루이스와 2년 최대 1100만달러에 계약을 맺고 메이저리그 진출에 성공한 김광현은 선발진의 한 자리를 제차는데 성공했다.

류현진과 김광현은 2020시즌 4번이나 같은 날 선발 등판해 야구 팬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하기도 했다.

2020년 9월25일에는 류현진이 7이닝 무실점으로, 김광현이 5이닝 1실점으로 호투해 나란히 같은 날 선발승을 수확, ‘슈퍼 코리아 데이’를 만들었다.

한국 투수가 빅리그 무대에서 같은 날 선발 승을 거둔 것은 2005년 8월25일 샌디에이고 파드리스에서 뛰던 박찬호와 뉴욕 메츠 소속이던 서재응이 작성한 이후 15년 만이었다.

토론토 에이스로 우뚝 선 류현진과 당당히 세인트루이스의 3선발로 올라선 김광현은 새해에도 MLB에서 한국 최고 좌완 투수의 위용을 뽐내겠다는 각오다.

◇건강 몸뚱이 류현진, 2021 시즌에도 에이스 기대

토론토가 2019시즌을 마친 뒤 4년 8000만달러를 투자해 FA 류현진을 영입했을 때 “과도한 지출을 했다는 평가도 적잖게 나왔다.



류현진은 LA 다저스에서 뛰던 2019시즌 14승 5패 평균자책점 2.32의 빼어난 성적을 거뒀지만, 부상으로 장기 공백이 있었던 만큼 그의 건강에 몰음표를 다는 이들이 많았다.

우려섞인 평가 속에 류현진은 토론토의 투자를 ‘신의 한 수’로 만드는 활약을 선보였다.

류현진은 코로나19 확산으로 개막이 약 4개월 연기되고 팀당 60경기 ‘초미니 시즌’이 치러지는 가운데서도 건강함을 유지하면서 선발 로테이션을 꾸준히 지켰다. 아내, 갓 태어난 딸과 떨어져 지내면서도 외로운 시간을 꿋꿋이 견뎠다.

캐나다 정부가 토론토의 홈구장 로저스 센터에서 MLB 경기가 열리는 것을 허가하지 않아 토론토는 시즌 초반 떠돌이 생활을 해야했지만, 류현진의 투구에 영향을 주지는 못했다. 아울러 류현진은 젊은 선수들이 많은 토론토에서 구심점 역할도 해냈다.

시즌 초반 다소 주춤했지만, 이내 에이스의 면모를 되찾았다. 올 시즌 12경기에 등판한 류현진은 5승 2패 평균자책점 2.69를 기록했다. 아메리칸리그 평균자책점 4위다.

류현진은 아메리칸리그 사이영 상 투표에서 3위를 차지했고, 메이저리그 최고 좌완 투수에게 주어지는 워렌 스파나도 수상했다.

류현진의 활약 덕에 2016년 이후 4년 만에 가을야구 무대에 선 토론토는 ‘투자의 맛’을 톡톡히 느끼고 있지만, 류현진은 여전히 에이스로 기대를 받는다. 현지 언론들은 2021시즌에도 류현진이 개막전 선

발을 맡으며 에이스로서 시즌 내내 선발진의 구심점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토론토가 전력 보강에 성공한다면 뒤를 받쳐줄 선발이나 볼펜 투수가 없어 외로운 싸움을 해야했던 류현진에게도 힘이 될 전망이다.

◇빅리그 연착륙... 김광현의 달라진 위상

세인트루이스와 계약하며 빅리그의 꿈을 이룬 김광현은 올해 초 힘겨운 시간을 보냈다.

스프링캠프에서 호투를 이어가며 선발 한 자리를 놓고 경쟁하던 김광현은 코로나19로 스프링캠프가 폐쇄되고, 메이저리그 개막이 차일피일 미뤄지면서 어려운 시간을 보냈다. 한국에 돌아오는 것도 여의치 않아 외로움을 이기며 언제 시작될지 모르는 시즌을 준비했다.

우여곡절 끝에 시즌이 개막했지만 김광현은 마무리 투수라는 생소한 보직으로 데뷔전을 치렀다.

개막한지 얼마되지 않아 세인트루이스에 코로나19 확진자가 속출해 선수단 전체의 이동이 제한되고, 경기 일정이 빽빽해지면서 김광현도 컨디션 관리에 어려움을 겪었다.

하지만 김광현은 힘겨운 시간을 모두 이겨냈다. 팀 상황으로 인해 익숙한 선발 보직으로 돌아온 김광현은 딱 맞는 옷을 입은 듯 한국 최고 좌완 투수다운 활약을 선보였다.

2020시즌 8경기(선발 7경기)에 등판한 김광현은 3승 무패 평균자책점 1.62의 뛰어난 성적을 거뒀다. 선발로 나선 7경기 평균자책점이 1.42에 불과했다.

2020년 스프링캠프를 시작할 때 선발 후보였던 김광현의 위상도 달라졌다. 어느새 세인트루이스 3선발 중 하나로 거론되고 있다.

세인트루이스에서 FA로 풀린 애덤 웨인라이트의 행선지가 아직 정해지지 않은 가운데 마이크 실트 세인트루이스 감독은 최근 현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재 플래티너, 김광현, 마일스 마이클러스가 선발진 세 자리를 확보한 상태”라고 밝혔다. 비록 짧은 시즌이지만 빅리그 무대를 경험해 본 김광현은 선발 자리를 보장받으면서 한층 안정적으로 메이저리그 두 번째 시즌을 준비할 수 있게 됐다.

김광현은 162경기 체제 속에서도 체력적인 문제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속세다.

뉴시스